

전공의 이탈 3개월...상급병원 경영 붕괴·환자 고통 가중

법원 정부 손 들어줬지만 전공의 요지부동·교수들 대응 강화 전남대 병원 적자 480억원 넘어서...추가 대출 받아 비상경영 조선대병원도 경영난 가중...집단 유급 등 초유의 사태 임박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9일로 세달째를 맞이했지만 의정갈등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배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기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상급병원들이 축소운영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의대교수들은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와 동맹휴학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업결손으로 인한 유급이 우려가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원 경영 붕괴= 전남대병원이 전공의들

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난 2월 20일 이후 총 48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19일 전남대병원엔 따르면 이날 이후 외래 환자는 13.5%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6.6% 줄었다.

지난 8일까지 총 79일 동안 483억원의 수입 적자가 발생, 경영에 위기 경보등이 켜졌다.

전남대병원은 300억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의료사태가 촉발된 지난 2월에 140억원을 운영비로 당겨 썼다. 예비비를 모두 소진하자 3월 초 재차 60억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적자가 누적되자 기존 전대병원 확장을 위해 적립해둔 예비 운영비까지 끌어 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병원측은 6월 중순까지는 기존 마이너스

통장으로 바뀔 수 있으나 상황이 더 장기화 되면 6월말께 추가 대출을 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선대병원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기존에 모 아둔 운영비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억원의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 곧 한계에 임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교수들 새비대위 꾸리나 = 전남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부터 2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차원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

지난 17일 오후 의대교수 전체회의를 거친 전남대 의대교수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 비대위의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이상 현재 비대위 체제로 정부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설문조사에서는 '2기 비대위 구성'이나 기존 '교수협의회 체제'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다.

기존 비대위는 '52시간 준법근로'나 '주1회 정기 휴진(셧다운)'의 대응 방안을 각 진료과의 상황에 맞게 권고 했다. 비교적 온건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결정에 따라 2기 비대위가 구성되면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대 비대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직서 제출과 휴진 등의 대응을 해봤지만, 정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하지만 아직 전공의나 의대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의대생 요지부동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의정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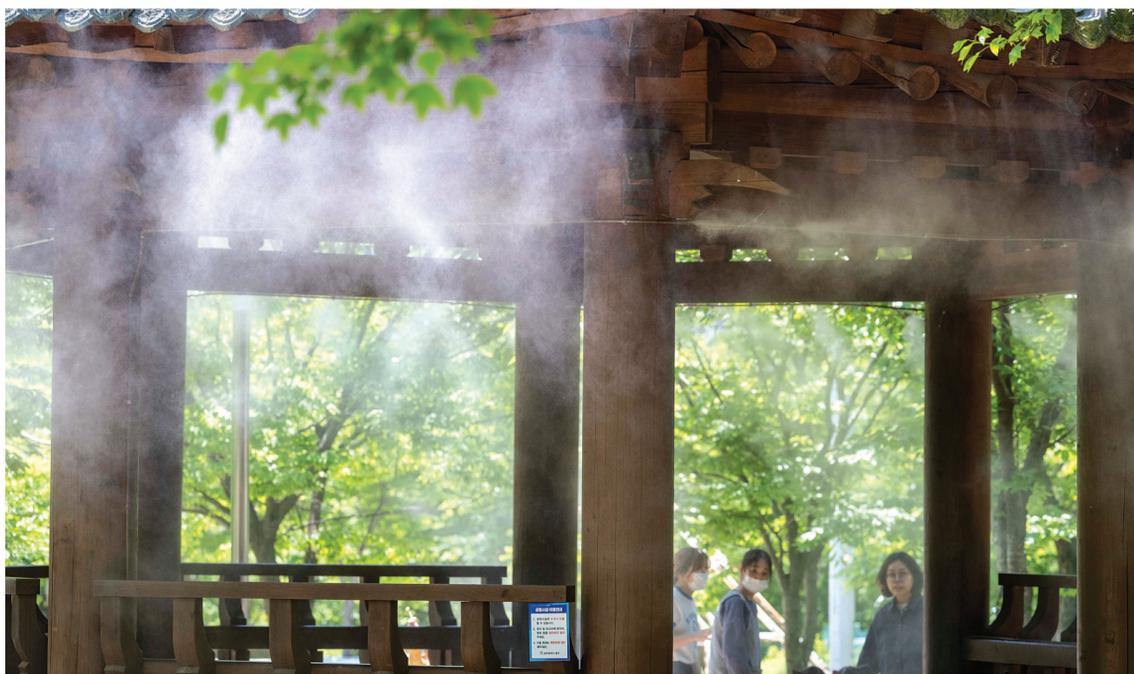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학들이 의대증원을 골자로운 학칙개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미복귀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전국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요리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요리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집단 유급 위기에서도 휴학을 강행한 의대생들도 물러서지 않을 모양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등 각 의대 학생 비대위는 릴레이 성명을 올리고 "사법부의 가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요리 폐기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통해 투쟁을 이어 나갈 것",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가치분 인용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낮 최고 기온 29.5도를 기록한 19일 오후 산책 나온 주민들이 광주시 북구 일곡근린제1공원 정자에 설치된 쿨링포트를 맞으며 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당분간 초여름 날씨...대부분 지역 25도 이상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광주·전남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절기상 태양이 황경 60도를 통과할 때인 소만

(小滿)인 20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평년(최저기온 11~15도, 최고기온 21~26도)보다 다소 높겠다.

21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22~28도 수준을 보이면서 이번주 내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과 23일은 낮최고 29도까지 오

를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고기압 영향권에 있어 광주·전남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다.

이에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 전남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상돼 야외활동시 주의가 필요하겠다.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의대 증원' 이번주 확정...지역전형 비율 주목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승인 할 듯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 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하려면 이번 주에는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

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모집요강은 수험생들이 최종 학습·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입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일단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연합뉴스

비브리오팀 주의보...“어패류 익혀드세요”

전남도,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남도가 19일 해수, 갯벌 접촉과 어패류 생식 등으로 감염되는 비브리오팀염증 예방을 위해 해산물 익혀먹기, 상처 있으면 바닷물 접촉 삼가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팀염증은 해수면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6월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가장 많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감염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여름철 환자 발생이 집중된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다.

주요 증상은 평균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다.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피부에 부종, 발적, 반상 출혈, 수포, 궤양, 괴사 등이 나타난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11명, 2021년 8명, 2022년 7명, 2023년 13명으로 4년간 39명이 발생,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 감염자가 패혈증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50%에 달하므로,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는 것을 삼가고, 어패류는 섭씨 85도 이상 가열·섭취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